

아파트 혁명 ② 온돌에서 진화한 K-아파트 바닥난방



한국의 아파트가 지금과 같은 고층아파트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닥난방의 진화 덕분이다. 천연가스 공급을 통한 바닥난방을 갖춘 고층아파트는 세상에서 한국밖에 없었다. 한국은 가스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런데도 현재 한국의 대부분 주택은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한 땀감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한다. 난방의 원료인 천연가스가 대중화되었던 것은 땀나무나 연탄 혹은 석유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며, 편리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아파트 실내는 바닥난방 방식이다. 불과 30~40년 전의 아파트는 모두 저층이었다. 고층이 불가능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난방의 땀감이 연탄이었다. 연탄 아궁이이거나 연탄보일러였던 시절, 아파트 복도는 연탄으로 가득했다. 주방 한쪽에 연탄보일러가 설치됐다. 더 이상의 층수를 높일 수가 없었다. 고층 아파트의 출현은 천연가스 공급과 첨단 보일러 시설이 설치되면서 가능했다. 한국의 도시가스 공급과 보일러 회사가 세계적인 이유는 한국 아파트 고층화 성공과 그 궤를 같이한다. 아궁이에서 지금의 가스 난방 보일러 시설로의 극복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다.

한국의 아파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다. 한국 주택은 토방(土房) 문화였다. 옛집에서 마루에 올라가거나 온돌방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과 분리된 좁 높은 평평하게 다진 흙바닥을 토방이라고 한다. 흙마루라고도 불린다. 여기에 신발을 벗어 놓는다. 그리고 실내에서 맨발로 생활한다. 실내 바닥과 몸의 밀착 면적 비율이 높다. 바닥난방은 방바닥에 드러눕기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리고 직접 그 열을 몸으로 접할 수 있어 열 효율적이고, 위생적이다.

굳이 토방이 '방(房)'으로 쓰이는 것을 보면, 신발을 벗는 위치나 행위 또한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토방에서 신발을 벗는 전통은 실내 방바닥이 온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토방의 높이는 아궁이의 설치와도 관계가 깊다. 그 높이만큼 아궁이와 방바닥 아래 열 통로였던 고래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생긴다. 지금의 아파트 실내 현관과 방바닥의 단차이는 난방 엑셀 파이프 배관을 매운 몰탈 높이와 같다. 아파트는 구들장이 없다. 온돌의 고래 역할을 몇 센티 되는 엑셀 파이프 배관이 대신한다. 온수가 흐르는 배관을 덮는 몰탈 시멘트는 중간 소음을 줄여주는 소음기 역할도 해줬다. 기막힌 발명품이다. 아파트의 현관이 토방(土房)이 된 유래가 이렇다.

온돌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따뜻한 돌', 즉 '구운 돌'이다. 이것이 '구들'이 되고, '구들'로 불려 평평한 바닥 '구들장'이 되었다. 겨울을 이겨내야 했던 지역이 우리만이 아니었을 것인데, 서유럽이나 이웃한 중국 혹은 일본은 왜 방바닥 데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삶의 양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서양의 벽난로와 중국의 화로는 지금의 히터나 라디에이터로 발전했다. 중국과 위도가 같아손 치더라도 경도가 달랐다면, 4계절의 체험도 달라졌을 것이다. 구들장은 겨울철 방바닥을 데워 열 효율을 높이고, 여름철 구들장 아래 고래는 시원한 공기의 통기구가 되었다. 이것은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었다. 온돌은 북방 유목문화와 남방 농경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이것이 역사다.

2002년 이래 5년 남짓, 중국은 무서운 프로젝트를 펼쳤다. 지금의 중국 땅덩이 안의 고대국가는 모두 중국의 역사라는 이데올로기였다. 동북공정이다. 요하강 일대 요령성과 송화강 유역 흑룡강성 그리고 두만강과 압록강 넘어 간도 혹은 만주라 불렸던 지금의 길림성 등 동북3성 일대에서 발원했던 고대국가 고조선과 부여와 고구려 그리고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해 버렸다. 역사 왜곡이다. 그릇된 이데올로기 극복은 인구

숫자로 불가능하다. 남북한 합쳐봐야 인구 9천만 명 정도로 세계 제일의 중국을 이겨내기 힘들다. 숫자로 싸울 일이 아니다.

동북 지역의 한국사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고대국가와 관련한 사료도 충분치 않다. 그나마 있는 것도 중국의 자료가 대부분이다. 최근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썩 좋지 않다. 지금 그 지역에서 공동 발굴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현재 중·고등학교 한국사 9종 교과서뿐만 아니라 공무원 한국사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조차 고대 동북 지역이 한국사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잘 알다시피, 비파형 청동검의 발굴 분포지와 겹쳐져서 발견된 고인돌 정도가 두드러질 뿐이다. 욕심 같아서서 고대 온돌방식도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비파형청동검과 고인돌 그리고 온돌방식은 중국문화와 확연히 구별되는 우리 역사 영역이다.

중국의 역사책, '구당서' 열전 동이 고구려 편에서 온돌을 소개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모두 구덩이를 길게 파서 밑에다 숯불을 지펴 (방을) 데운다." 송기호 선생은 이를 '쪽구들'이라고 했다. 고구려는 집안 한쪽 공간에 온돌을 설치했다. 사료에 등장하는 온돌 장면이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한국사에서 온돌문화 공동체를 보여줬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좋았을 적, 노무현 정권 당시 2005년 8월에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에 있는 옛 발해 성터에서 이제까지 발굴된 것 가운데 가장 크고 완벽한 형태의 온돌 유적이 발견됐다. 발해는 고구려를 이었다.

한국의 주거 형태인 온돌방식은 삼국을 거쳐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져서 지금 한국의 바닥난방 아파트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난방 방식의 진화를 통해 초고층 아파트 생활을 구현해냈다.

이 방식은 세계에서 유일하다. 2010년 전후하여 중국도 아파트 붐이다. 양쯔강 이북을 중심으로 한국의 바닥난방 방식을 가져다 쓰고 있다. 그들이 나중에 바닥난방 아파트 중주국을 주장할까 봐 걱정된다.

광주천 공사현장 붕괴, 땀질 행정 아닌가

장마 대비책 전면 재점검을

광주천 동천교 일대 공사 현장이 첫 장맛비에 토사 유실과 가림막 붕괴라는 민낯을 드러내며 광주시의 부실한 장마 대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장마철을 앞두고 광주시는 중장비와 자재 철거, 가림막 설치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이틀간의 비에도 이를 지켜내지 못하며 시민 불안을 현실로 만들었다.

광주천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은 4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하수처리 체계 개선과 광주천 수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사업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는 뒷전이였다. 공사 자재는 장기간 산채로를 점거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했고, 첫 장맛비에 공사 현장은 진흙탕으로 변해 산채로 이용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주민들은 "예방도 없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24일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장마도 걱정이다.

광주시는 "강우 전후 예방 활동과

신속 복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전 대비와 안전 대책이다. 장마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큰 비가 내릴 경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번 사태는 광주시의 땀질식 행정이 시민 안전과 세금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공사는 단순히 예산과 목표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철저한 관리와 안전 대책이 수반돼야 의미를 가진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시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행정은 실패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야 한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철저한 대비책을 시행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더 이상 땀질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저버려선 안 된다. 이번 장맛비 피해를 교훈 삼아 광주시는 진정한 책임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행정만이 세금의 가치를 살리고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위기의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돼야

‘정상화’ 대주주 결단도 필요해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대유위니아 파산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가중된 지역 경제난에 대응해 정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대유위니아 파산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재난이다. 법적 검토 등 정부차원의 신속한 지정작업을 촉구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직접 피해 범위에 든 광주공장 종사자는 2500여 명, 협력사는 2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협력업체와 인근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지역민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고용불안 확산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화재가 발생한 지금까지 공장은 멈춰 있고, 과실 유무를 가리기 위한 감식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도 문제다. 최대주주인 더블스타가 침묵하면서 공장 정상화도 요원한 실정이다.

대유위니아 그룹의 주요 계열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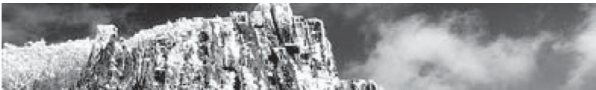
사도 상장 폐지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며 기업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2023년부터 시작된 대유위니아 그룹의 주요 계열사 파산으로 인해 광주 지역에서만 3조 5000억 원의 생산 감소와 1만 3000여 명의 취업자 감소가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특히, 광산구에는 대유위니아 관련 협력업체 대부분이 몰려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광주공장 생산 물량 일부의 해외 이전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관세정책 등이 겹치며 지역 산업 분위기도 경색되고 있다. 광산구뿐 아니라 광주 지역 전체가 최악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산구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광주의 핵심 산업단지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업 파산과 대형 화재에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까지 가중되면 광주는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정부는 광산구와 광주의 절박함을 귀담아 들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주주의 결단도 필요하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길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

서석대



올 시즌 KIA타이거즈는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를 펼치며 팬들에게 우승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이른바 '잇몸 야구'라 불리는 KIA의 야구는 화려하진 않지만 내실 있는 승리로 팀을 4위권에 올려놨다.

'잇몸 야구'라는 표현은 주전 선수들이 빠진 상황을 이가 빠진 것에 빗댄 것이다. 그러나 주전이라는 치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뿌리를 받치는 잇몸, 즉 KIA타이거즈 백업의 힘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144경기라는 긴 시즌을 주전 선수들만으로 소화할 수는 없다. 주전에게 휴식을 주고, 부상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백업이 있기에 팀은 끝까지 강팀으로 남을 수 있다.

KIA의 잇몸은 예상보다 튼튼하다. 백업 선수들이 요소 요소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필요한 타격을 해내며 팀을 지탱하고 있다. 나성범, 김도영, 김선빈 등 야수들의 줄부상에 이어 이의리, 황동화, 박도규 등 투수들까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잇몸 선수들의 활약으로 위기를 돌파 중이다.

특히 마운드에서는 성영택의 성장이 단연 돋보인다. 2024 신인드래프트 10라운드 전체 96순위로 입단한 성영

택은 2군에서 착실히 준비한 끝에 올 시즌 1군에 데뷔, 13경기 17.1이닝 무실점이라는 눈부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구단 최장 연속 무실점 기록을 경신하며 KBO 역대 3위에도 올랐다.

올해 2라운드 15순위로 입단한 신인투수 이호민 역시 인상적인 투구를 펼치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호민은 지난 17일 광주 KT위즈전에서 1이닝 무실점으로 1군 데뷔전을 마무리한 데 이어 21일 인천 SSG전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22일 인천 SSG전에서는 0.2이닝 무실점으로 데뷔 첫 승을 신고했다.

야수진에서도 오선우와 김호령은 대체선수라기엔 아까운 활약으로 주전 못지않은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김규성, 박민도 역시 주전들의 빈자리를 훌륭히 메우며 팀 승리에 기여하고 있다.

KIA의 잇몸 야구는 선수층의 두터움을 의미한다. 이런 팀이기에 팬들은 다시 한 번 가을야구와 우승을 꿈꾸고 있다. 화려한 이름 대신 내실 있는 팀워크로 승리를 쟁아가는 KIA의 잇몸 야구는 분명 강하다. 이제 그 힘을 끝까지 이어가길 바란다.

최동환 논설위원